

항공운송 동향분석

2011년 7월 우리나라 항공운송동향분석

한국항공진흥협회 기술정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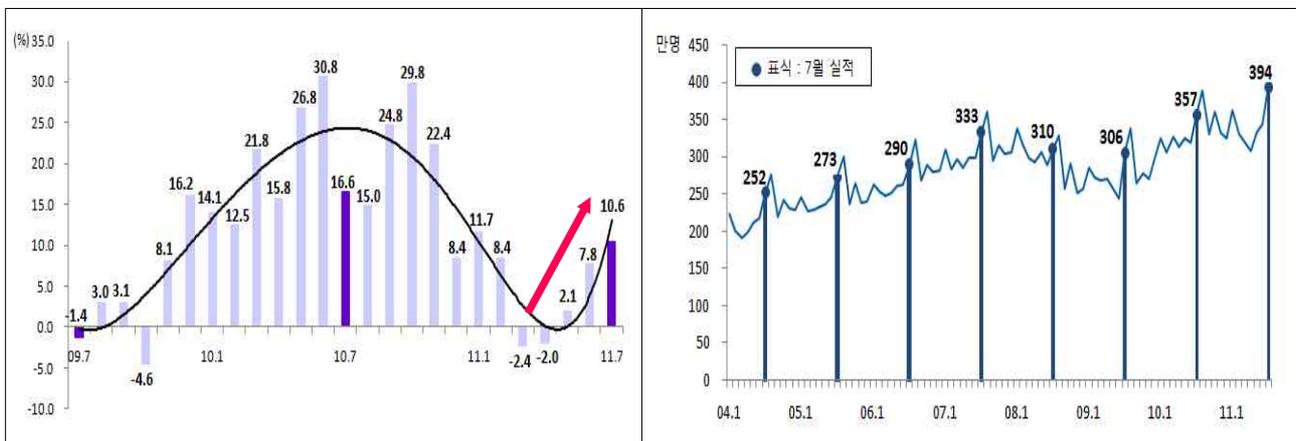


'11년 7월 우리나라 항공운송동향분석

- ❖ 본격적인 여름철 성수기에 진입하면서 해외여행수요가 급증하여 국제여객이 전년대비 10.6% 증가, 역대 월간 최대실적을 기록한 반면 항공화물은 글로벌 금융 불안확대, IT수출입 화물의 지속적인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0.9% 감소

국제여객

2011년 7월 국제여객은 원화강세, 여름방학, 휴가기간을 이용한 해외여행수요 급증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10.6% 증가한 3,943,303명을 달성하였다. 이는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으로, 최고점이었던 2010년 8월(3,892,724명)보다 1.3% 높은 것이었다. 아래 <그림 1>은 국제여객의 전년 동월대비 증감률과 실적추이를 나타내어 준 그래프이다.



<그림 1> 국제여객 전년대비 증감률 및 실적추이 그래프



(좌) 성수기를 맞아 여행객들로 붐비는 인천공항의 모습, (우) 'Summer Dream'을 테마로 한 인천공항의 공연 프로그램 모습

〈표 1〉은 공항별 국제선 운항 및 국제여객실적을 정리한 표로, 공항 전체적으로 7월 운항과 여객이 전년대비 각각 9.7%, 10.6% 증가하며 공급 대비 수요 증가가 높게 나타나며 성수기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은 여름방학, 휴가기간을 이용한 내국인의 여행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년대비 8.3% 증가하였고, 지난 7월 31일 일일 여객 실적이 개항 이래 최초로 12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공항별 국제 여객실적

(단위 : 회, 명)

구 분	운항			여객		
	'10년 7월	'11년 7월	전년대비	'10년 7월	'11년 7월	전년대비
인천	18,448	19,633	6.4%	2,925,388	3,167,748	8.3%
김포	1,240	1,733	39.8%	259,261	344,672	32.9%
김해	2,084	2,556	22.6%	269,342	313,748	16.5%
제주	554	622	12.3%	76,944	84,251	9.5%
대구	114	137	20.2%	13,621	16,879	23.9%
청주	84	87	3.6%	10,484	9,772	-6.8%
무안	61	50	-18.0%	8,120	6,233	-23.2%
양양	34	0		2,570	0	

김포공항은 전년대비 32.9% 증가하며 공항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는데, 이는 중국의 여객 실적이 전년대비 약 2.8배 증가하며 나타난 결과였다. 지난 7월 1일 김포-베이징노선의 운항이 시작되면서 중국여객실적은 대폭 증가하였으며, 김포-베이징노선이 기존에 운항되던 김포-홍차오 노선이용객 이상의 수요를 발생시키며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상반기 감소세를 보이던 제주공항은 7월 들어 중국여행객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일본과 동남아시아 지역이 전년대비 각각 -6.9%, -16.8% 감소한 반면 중국은 전년대비 3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세를 보인 공항은 청주·무안공항으로, 특히 청주공항의 경우 일본노선이 운항되지 않음으로써 그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2>는 지역별 국제여객실적을 나타내어 준 것으로, 일본을 제외한 전 지역이 증가세를 지속, 지난 3월 대지진 발생이후 일본 수요 감소분을 동남아가 지속적으로 충당하면서 증가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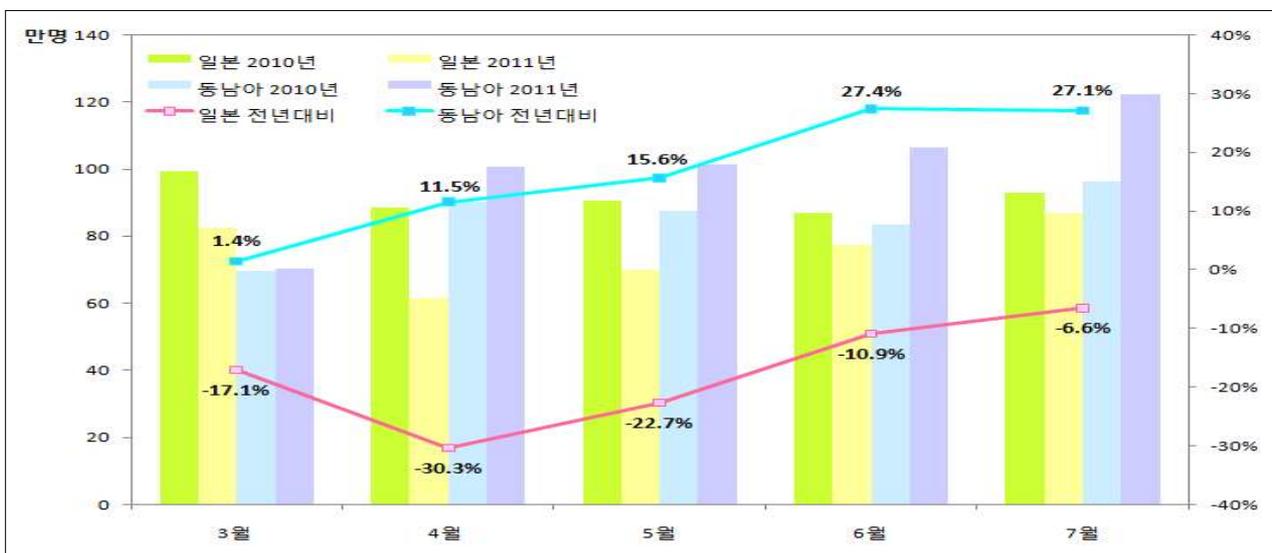
<표 2> 지역별 여객실적

(단위 : 명)

구 분	일본	중국	동남아	미주	유럽	대양주	기타
'10년 7월	930,865	885,069	963,217	347,312	263,644	115,291	60,332
'11년 7월	869,815	971,150	1,224,234	381,776	303,730	131,377	61,221
전년대비	-6.6%	9.7%	27.1%	9.9%	15.2%	14.0%	1.5%

구체적으로 5개월간 일본노선의 수요 변화를 살펴보면,
 -17.1%(3월) → -30.3%(4월) → -22.7%(5월) → -10.9%(6월) → -6.6%(7월)로 4월 감소폭이 커졌다 5월 골든위크를 기점으로 여행소비심리가 회복되며 감소폭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 비중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전체 중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4월에 20.0%로 전년대비 -8.2%p 감소하였으나 7월에는 22.1%로 전년대비 -4.0%p 감소하며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의 감소분만큼 동남아시아의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동남아시아가 일본지역의 감소분을 충당하며 성장세를 이끌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그림 2>는 일본 대지진 발생 시점(3월) 이후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실적을 비교한 것으로, 전년대비 일본의 수요는 감소한 반면 동남아의 수요는 증가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동남아는 부정기편 증대, 일본 대체여행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7월 전년대비 27.1% 증가하며 지역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그 외에 방학과 휴가기간을 이용한 장거리 여행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미주·유럽지역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일본과 동남아 여객실적/증감률 변화

2011년 7월 국적사의 비율은 전 지역 평균 65.1%로 전년대비 0.08%p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는 전년대비 2배 증가하여 4.5%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 LCC 분담률 : 0.1%('08.7) → 0.6%('09.7) → 2.5%('10.7) → 4.5%('11.7)

7월 인천공항의 환승여객은 공급좌석 확대에 따른 환승여객 수요 흡수 등으로 전년대비 18.8% 증가한 49만명, 환승률은 15.5%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환승여객 : 42만명('09.7) → 42만명('10.7) → 49만명('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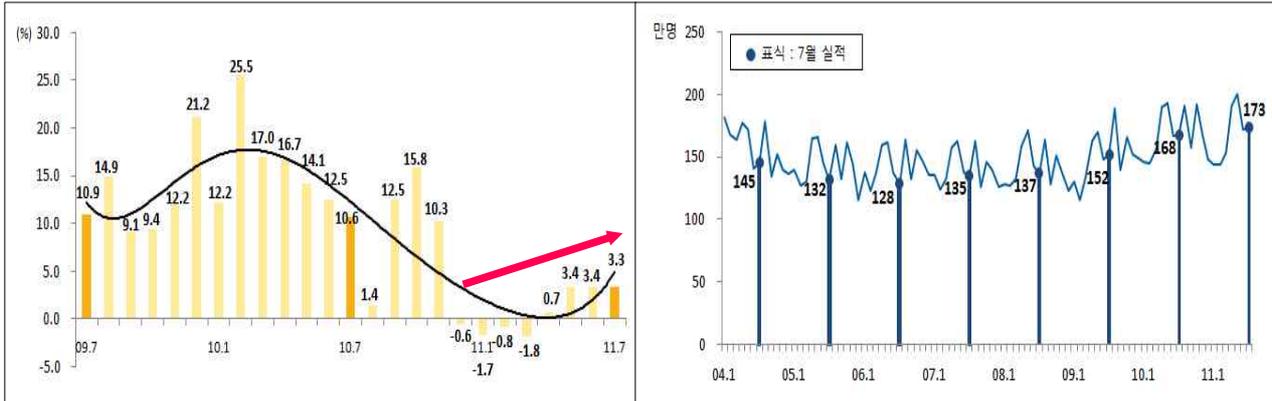
* 환승률 : 16.3%('09.7) → 14.2%('10.7) → 15.5%('11.7)

현재의 증가추세와 8월이 여객수요의 고점인 점을 감안할 때, 국제여객은 8월에도 대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여객

7월 국내여객은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부터 연속 3개월간 3%의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이는 잦은 대폭우, 해외여행수요 급증에 따른 영향으로 국내여객수요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8월에는 7월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7월 국내여객은 전년대비 3.3% 증가한 1,734,491명을 달성하였다.

국내여객실적을 제주노선과 내륙노선으로 나누어살펴보면 제주노선의 경우 7월 전년대비 11.4% 증가한 반면 내륙노선은 전년대비 -1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탑승률은 제주노선이 76.4%, 내륙노선이 58.8%로 전년대비 모두 다소 감소하였으며, 내륙노선에서의 감소폭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국내선 여객 전년대비 증감률 및 실적추이 그래프

〈표 3〉 제주노선 vs 내륙노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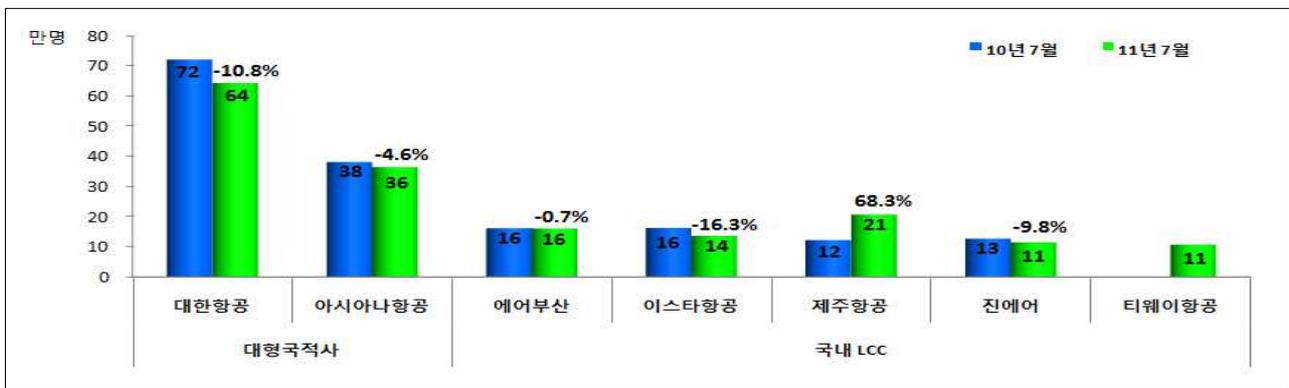
	제주노선		내륙노선	
	여객	탑승률	여객	탑승률
'10년 7월	1,223,975	81.2%	454,887	68.3%
'11년 7월	1,363,682	76.4%	370,809	58.8%
전년대비	11.4%	-4.8%p	-18.5%	-9.4%p

〈표 4〉를 통해 공항별 운항 및 여객실적을 보면 제주공항과 김포·김해·청주공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방공항에서 감소세를 보였으며, 특히 KTX 2단계 개통 이후 울산공항은 전년대비 -48.3% 감소, 포항공항은 전년대비 -33.0% 감소하면서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공항의 경우 유일하게 10%이상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여름철 성수기 운항 증대, 운임할인 이벤트 등이 여행수요를 더욱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포-제주노선의 경우 저비용항공사의 분담률이 전년대비 8.9%p 증가하며 52.9%를 기록, 김해-제주노선은 7.1%p 증가한 61.9%를 기록하는 등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한 여행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7월 저비용항공사의 국내여객실적은 725,360명, 분담률은 전년대비 7.6%p 상승한 41.8%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LCC 분담률 : 10.3%('08.7) → 29.8%('09.7) → 34.2%('10.7) → 41.8%('11.7)



〈그림 4〉 국내선 항공사별 실적 비교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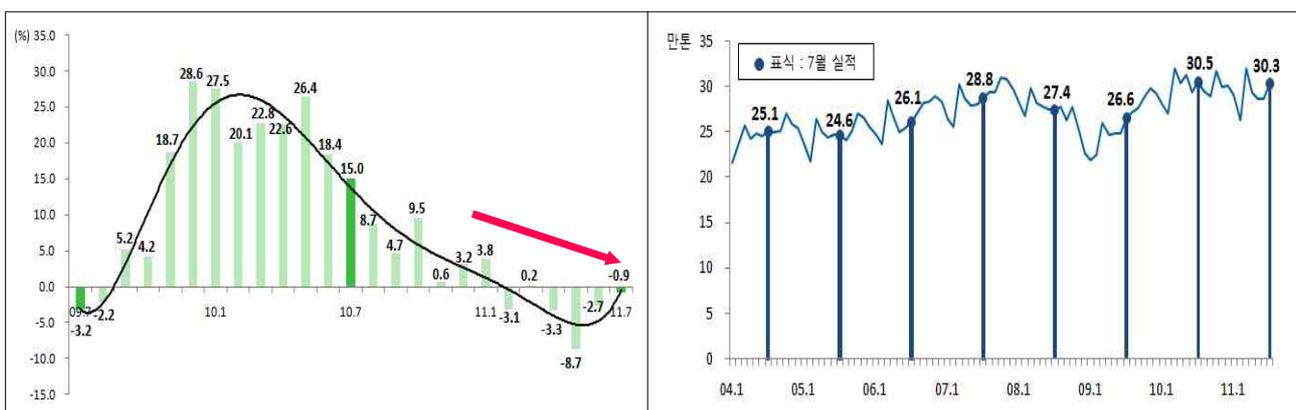
〈표 4〉 공항별 국내선 운항 및 여객실적

구 분	운 항			여 객		
	'10년 7월	'11년 7월	전년대비	'10년 7월	'11년 7월	전년대비
제주	3,947	4,586	16.2%	596,016	661,088	10.9%
김포	4,189	4,590	9.6%	609,138	628,622	3.2%
김해	1,557	1,632	4.8%	208,469	213,190	2.3%
광주	429	462	7.7%	53,697	53,311	-0.7%
청주	323	333	3.1%	45,442	47,320	4.1%
대구	309	300	-2.9%	45,749	40,777	-10.9%
여수	241	247	2.5%	25,198	24,842	-1.4%
울산	348	233	-33.0%	41,503	21,471	-48.3%
인천	193	192	-0.5%	22,199	19,958	-10.1%
포항	156	151	-3.2%	14,422	9,664	-33.0%
군산	61	52	-14.8%	7,258	5,966	-17.8%
사천	77	80	3.9%	6,093	5,541	-9.1%
원주	27	28	3.7%	2,715	2,376	-12.5%
무안	9	9	0.0%	963	365	-62.1%

항공화물

7월 항공화물은 미국 경제의 더블딥 우려, 유럽의 재정위기의 확산 가능성 등 세계금융시장의 불안이 증폭되고, 반도체 시장의 지속적인 침체현상, 제품소형화에 따른 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성장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상반기 이례적으로 보인 항공화물 급등세로 인한 기저효과와 영향으로도 볼 수 있으나, 현재의 무역 성장세를 고려하였을 때 항공화물의 추세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월 항만을 이용한 화물 운송량은 전년대비 13.2% 증가하며 역대 7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하면서 무역성장세의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월 항공화물은 전년대비 -0.3% 감소한 302,659톤을 달성하였고, 세부적으로 국제화물은 전년대비 -1.4% 감소한 281,886톤, 국내화물은 전년대비 6.6% 증가한 20,773톤을 달성하였다. 국제화물 운송량의 약 96%를 점유하는 인천공항은 7월 전년대비 -2.4% 감소하며 전체 항공화물실적의 감소세를 이끌었고, 국내화물의 경우 1) 제주공항이 7월 전년대비 14.7% 증가, 김포공항이 7월 전년대비 31.6% 증가, 김해공항이 7월 전년대비 15.0% 증가하며 증가세를 이끌어 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항공화물 전년 대비 증감률 및 실적추이 그래프

- 1) 제주공항: 2011년 7월 기준 39.3% 점유, 김포공항: 2011년 7월 기준 31.6% 점유
김해공항: 2011년 7월 기준 15.0% 점유

〈표 5〉 지역별 화물 실적

(단위 : 톤)

구 분	일본	중국	동남아	미주	유럽	대양주	기타
'10년 7월	39,305	54,314	73,016	64,504	47,393	4,162	3,112
'11년 7월	36,142	52,802	74,742	61,282	48,512	4,834	3,572
전년대비	-8.0%	-2.8%	2.4%	-5.0%	2.4%	16.2%	14.8%

〈표 5〉는 지역별 화물실적을 나타내어준 표로, 동남아와 유럽, 대양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지난 3월 대지진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주·중국·유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조업체의 부진, 금융 불안 등이 나타나며 감소, 둔화현상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항공화물의 감소추세는 주요품목인 IT제품의 수출 부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지식경제부 자료에 의하면 7월 IT제품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1일), 메모리 및 디스플레이 패널의 단가하락에 따른 수출부진으로 전년대비 -3.2% 감소하며 21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년대비 IT 수출 증가율 : ('10.7) 24.7% → ('11.7) -3.2%

* 전년대비 IT 수입 증가율 : ('10.7) 13.8% → ('11.7) 1.8%

하반기에도 항공화물은 IT제품의 소형화 트렌드에 따른 중량감소, 패널 단가하락에 따른 수출부진 등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가 전통적인 IT 제품 성수기이고, 스마트폰, 태블릿PC의 수출호조, 한·EU간 FTA 발효(7.1), 유가하락 등이 화물수요를 견인하며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의 환적화물은 7월 105,430톤으로 전년대비 4.3% 증가, 환적률 또한 전년대비 4.1%p 상승한 47.9%를 기록하였다.

6월 공항 출입국동향

일본의 지진발생 이후 크게 감소하던 출입국 실적이 최근 조금씩 회복하는 가운데 2011년 6월 전체 외래국 입국은 전년대비 10.8% 증가, 내국인 출국은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공항을 이용한 외래객 입국은 전년대비 12.7% 증가한 69만 명, 내국인 출국은 7.4% 증가한 98만 명으로 내국인의 비율은 58.8% 수준이었다.²⁾

* 전체 출입국자 : 185만 명, 공항 이용 출입국: 166만 명

* 공항이용 외래객 입국('10.6월 61만 명 → '11.6월 69만 명)

* 공항이용 내국인 출국('10.6월 91만 명 → '11.6월 98만 명)

전체 외래객 입국 중 공항이용 외래객입국은 86.2%, 전체 내국인출국 중 공항이용 내국인 출국은 92.8%에 해당한다. 외래객 입국은 인천, 김포, 김해 순으로, 내국인 출국은 인천, 김해, 김포 순으로 나타났다.

공항별로 살펴보면 외래객입국의 경우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등 주요공항이 전년대비 모두 플러스 성장을 나타내었고, 내국인 출국의 경우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은 전년동월과 비교하여 실적이 증가하였으나 김포공항은 일본 여행수요 감소로 인해 또다시 -13.1%의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출입국 현황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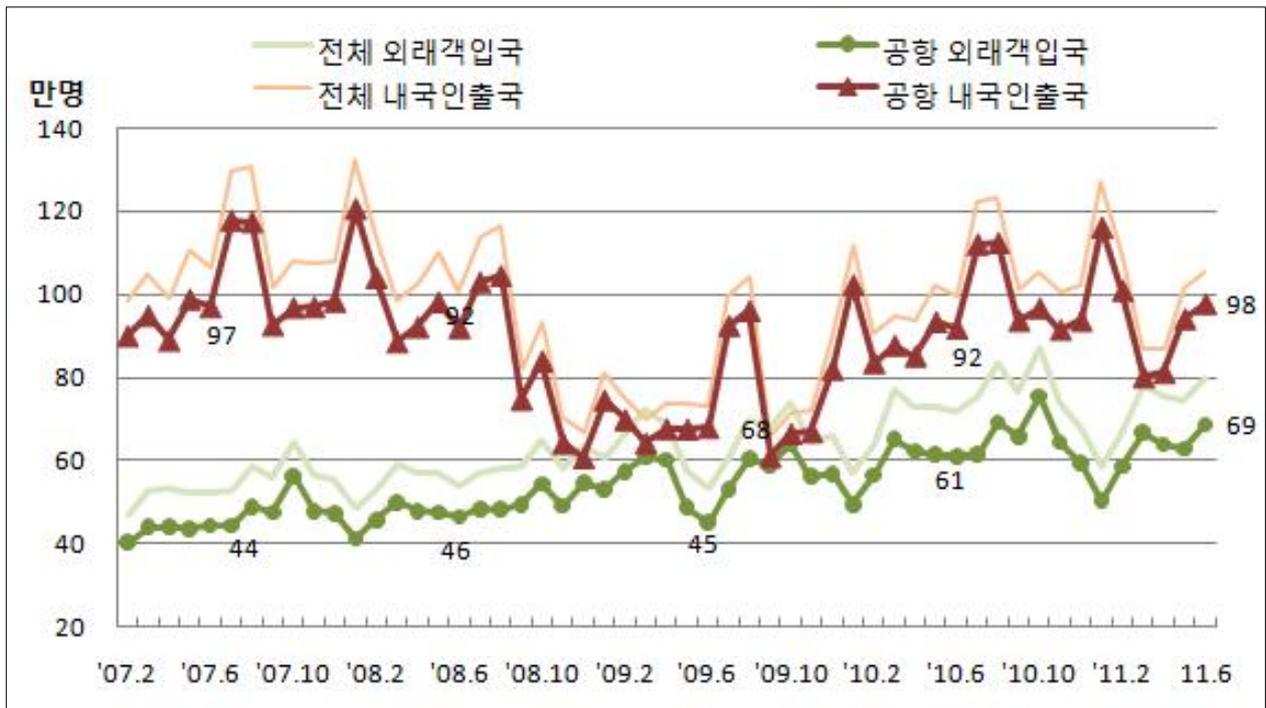
구 분	공항					비율	항구	비율	합계	
	인천	김해	김포	제주	기타					
외래객입국	494	49	93	48	2	686	86.2	109	13.8	796
내국인출국	810	104	47	4	13	978	92.8	76	7.2	1,054
계	1,304	154	139	52	15	1,665	90.0	185	10.0	1,850

2) 출입국통계는 항공통계와 집계기관이 다르고 승무원, 유아, 군공항, 환승 등에서 집계기준 차이 발생

〈표 7〉 외래객 입국, 내국인 출국현황

(단위 : 명, %)

구 분	외래객 입국				내국인 출국				내국인 비율 (%)
	'10. 6월 입국	'11. 6월 입국	증감 (%)	점유 (%)	'10. 6월 출국	'11. 6월 출국	증감 (%)	점유 (%)	
공 항	609,154	686,400	12.7	86.2	911,089	978,117	7.4	92.8	58.8
· 인천	456,087	493,840	8.3	62.1	754,852	809,867	7.3	76.9	62.1
· 김해	37,931	49,415	30.3	6.2	89,474	104,490	16.8	9.9	67.9
· 김포	72,128	92,602	28.4	11.6	53,634	46,617	-13.1	4.4	33.5
· 제주	39,671	48,495	22.2	6.1	3,590	3,764	4.8	0.4	7.2
· 기타	3,337	2,048	-38.6	0.3	9,539	13,379	40.3	1.3	86.7
항구 등	109,286	109,450	0.2	13.8	86,508	75,541	-12.7	7.2	40.8
합 계	718,440	795,850	10.8	100.0	997,597	1,053,658	5.6	100.0	5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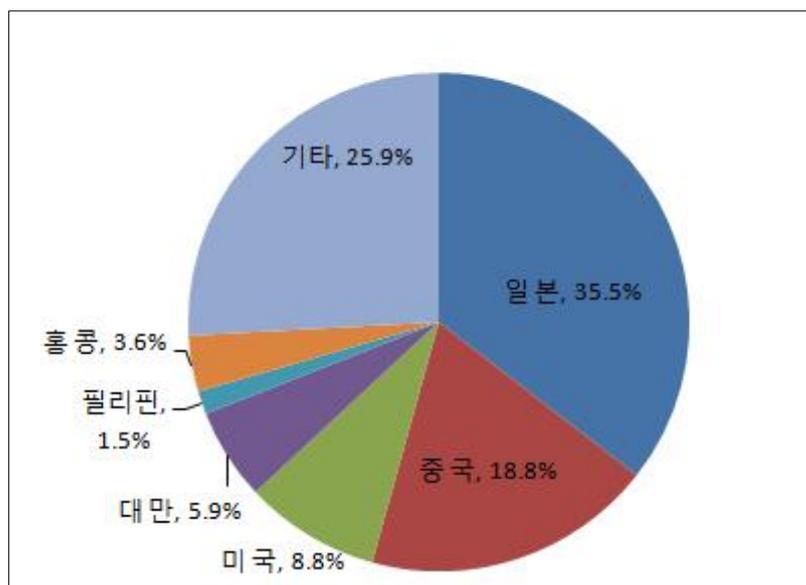
〈그림 6〉 외래객 입국, 내국인 출국 추이 그래프

마지막으로 6월 국적별 외래객 입국현황을 살펴보면 일본인과 중국인의 입국이 크게 증가하였고, 미국의 입국이 다소 감소하였다. 2011년 6월 외래객 입국 중 각 국적의 비율은 일본이 35.5%, 중국이 18.8%, 미국이 8.8%에 해당한다.

〈표 8〉 국적별 외래객 입국현황

(단위 : 명)

구 분	전체 입국					공항 전체	성장률 (%)	국적별 점유(%)
		인천	김해	김포	제주			
일 본	254,872	125,959	24,757	82,272	10,857	243,864	10.5	35.5
중 국	179,508	91,757	5,637	2,246	28,209	128,775	25.0	18.8
미 국	61,208	55,481	1,965	1,573	227	60,197	-3.9	8.8
대 만	41,292	36,216	2,245	166	2,176	40,817	25.8	5.9
필리핀	28,579	7,374	1,464	75	1,436	10,354	40.6	1.5
홍 콩	24,973	21,634	2,526	97	642	24,900	43.3	3.6
전체	795,850	493,840	49,415	92,602	48,495	686,400	12.7	100.0



〈그림 7〉 국적별 공항이용 외래객 비율 그래프

- ❖ **(통계 유의사항)** 2011년 3월 항공운송동향분석부터 국제여객 및 항공화물의 노선별 실적이 전체 공항 실적을 합산한 수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전 분석 자료에서는 인천공항의 노선별 실적 자료만 비교분석하였으므로 과거 자료와 비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선별 지역 구분은 아래 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지역	포함 국가	비고
일본	일본	
미주	미국, 브라질, 아이티, 칠레, 캐나다, 페루	괌, 호놀룰루, 사이판 제외
동남아	네팔, 대만, 말레이시아, 몰디브공화국, 몽고,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제르바이잔,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필리핀	홍콩, 마카오, 사이판 포함
중국	중국	홍콩, 마카오 제외
유럽	(유럽)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몰타공화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터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CIS) 그루지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대양주	뉴질랜드, 뉴칼레도니아, 피지, 호주	괌, 호놀룰루 포함
기타	(중동)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터키, 파키스탄	
	(아프리카) 콩고	
	(기타) 국제선 국내공항 경유 노선	